



포천 구담사

애자모 지장보살·탱화·108동자상 점안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국망봉 산자락, 우거진 숲과 오엽되지 않은 계곡의 물소리가 함께 하는 자연 속에 구담사가 위치해 있다. 구담사는 1993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태아영가 천도도량으로 처음 문을 연 이후, 99년 이 곳으로 이전해 '아빠·엄마가 참회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 했다. 구담사가 이런 도량으로 불리는 데에는 주지 지울스님이 애자모지장보살을 모신 도량으로 세운 원력은 △태아영가를 위해 기도하는 도량 △태아의 아이가 유산되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도량 △아이를 갖고 싶어 인연을 맺게 하는 기도도량이다. 지울스님은 법당과 요사 불사가 미처 완공되지 않은 현재

도량에 98년 들어와 못다한 불사를 완공하고 2000년에는 산신각 불사와 사찰 앞 축대 불사, 진입로를 새로 닦았다. 오는 9월 7일에는 국내 최초로 조성한 애자모(愛子母) 지장보살과 탱화, 108동자상의 점안식을 열 예정이다. 애자모지장보살은 신심이 독특한 군불자의 도안에 근거해 조성됐다. 이렇게 도량

의 모습을 갖춰 온 구담사에는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귀자모신상(鬼子母神像, 아이를 추호하는 나찰로, 부처님에게 귀의하여 잘못을 뉘우친 후 아이를 보살피는 애자모신이 됐다)과 애자모 지장보살상(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신의 어머니), 애자모 지장보살 탱화 등 태아영가와 관련된 성물을 만

날 수 있다. 또한 자연석을 깎아 광배를 삼은 산신각 또한 독특한 양식으로 불자들의 발길을 잡는다. 구담사 지울스님은 보성 대원사에서 3천배 100일기도를 통해 세운 원력으로 구담사를 태아영가의 참회기도 도량으로 일컫는다. 이 곳에서 만난 구담사 주지 지울스님은 "태아영가 천도도 아빠·엄마가 지극한 정성으로 참회할 때 태아영가는 비로소 다음 인연의 자리를 얻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며 "구담사는 태아영가와 태아영가의 아빠·엄마를 위해 세워졌고, 앞으로 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아 영가위해 기도·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얻고싶은아이와 인연맺게 하는 기도도량으로 우뚝**

“낙태아 영가위해 아빠·엄마가 참회 기도하는 도량 만들터”

구담사 주지 지울스님



10여년간 태아영가를 천도해 온 구담사 주지 지울스님은 부모와 자식의 지중한 인연을 낙태로 끊음으로 인해 원결로 남게 된다고 강조한다. 태아도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윤회하는 생명체인데, 태중에서 죽임을 당한 영가는 중음으로 떠돌며 많은 흉사를 발생시킨다. 때문에 태아영가도 바른 길로 인도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자령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구담사에서는 태아 영가라고 부릅니다. 수자라는 말은 일본불교에서 사용하며, 수자령을 위해 공양하는 마음에서 부르는 단어지요. 그러나 경전에 수자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태아 또는 태중이라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스님은 “낙태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귀중한 생명을 죄의식 없이 살생하는 요즘 세대는 점점 더 많은 태아령들이 원결을 맺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태아영가의 이러한 멋진 원망을 풀어 업장을 소멸해 주고 다음 생의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태아령 천도의 참뜻”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태아영가를 위해 본인의 업대로 위패를 각자 써주고 49재를 7회 이상 모셔줄 것을 충고한다. 그래야만 후세 자손들까지도 좋은 인연을 맺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울스님은 “천도제 기도는 가능한 조상 영가 천도제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받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아영가 천도는 부모의 업장 참회 기도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다. “태아영가 천도제에 참가한 부모에게는 참회의 마음을 담아 분유와 사랑·과자·초코와 이 등을 공양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과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한 영·유아원에 전달돼 새로운 선행의 인연을 맺는데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아빠·엄마의 진실된 참회를 통해 낙태의 죄업을 소멸하고 보시의 공덕으로 밝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웅전에 모셔진 애자모지장보살탱화. 9월7일 점안법회가 열린다.



◇자연석을 깎아 조성된 산신.



◇귀자모신상.

〈중일아합경〉에 이르기를 ‘어머니가 욕심이 있어 부모가 함께 자더라도 밖에 식(識)이 오지 않으면 수태(受胎)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여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수태의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뜻이다. 〈대보적경〉에는 ‘어머니의 태 안이 기운으로 막히거나 혹은 태 안이 마치 보리같이 거칠거나, 혹은 정혈이 많이 쏟아져 잠지도 그치지 않거나, 혹은 냉 대하로 물이 흐르거나, 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쪼그렷거나 등 여러 가지 병들이 있으면 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다. 또 부모 될 이는 존귀하고 큰 복덕이 있는데 중유가 낮고 천한 경우, 혹은 이 반대의 경우, 또는 양쪽 모두 복덕 없으면 역시 아이를 배지 못하게 된다.

부모가 성행위를 할 때 성내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도 중유는 태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업을 짓지 않은

부모와 나의 지중한 인연

경우 등도 모두 중유가 태중에 들지 못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 태중에 들어가는 중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복덕이 없는 중유요, 또 하나는 큰 복덕이 있는 중유다. 복덕이 적은 중유는 허전한 집에 태어나려 하면서 죽는 때와 태안에 들어갈 때 갖가지 어수선한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가 우거진 숲과 대나무며 갈대 따위의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이 중유는 태속에 들어가면서 나쁜 것과 어수선한 모습을 보며 연을 맺기 때문에 성격이 포악하고 그릇됨을 행하게 한다. 그러나 복덕이 많은 중유는 높고 귀한 집에 태어나려 하면서 스스로 고요함과 아름다움과 뜻에 맞는 음성을 들으며 부모에게 접근한다. 이 중유는 태속에 들면서 나쁜 것을 보지 않고 다복하고 좋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성격이 온화하고 품위가 단정하다. 부모가 사랑과 행위에 나쁜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9월7일(양력) 태아영가 엄마·아빠 49일 참회기도 입재

귀의삼보 하옵고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문턱, 기도의 계절, 불자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담사에서는 매년 양력 3월, 6월, 9월(첫째 일요일)에 태아영가를 위한 엄마·아빠 참회기도 49일 천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사인연 동참하시어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여 원만한 불사를 마쳤습니다. 양력 9월 7일 국내최초의 애자모 탱화, 애자모 지장보살, 108동자를 조성하여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은에 감사드립니다.

증명법사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 큰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
일시 2003년 9월 7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구담사 대웅전

애자모 지장보살, 애자모탱화 및 108동자 점안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 ◆ **기도 입재일** : 양력 9월 7일(첫째 일요일)
- ◆ **시 간** : 양력 10월 26일
- ◆ **기도 동참금** : 49일(7회) 3년 회향까지 30만원 (단, 완불하신 분은 동자 봉안해 드림) 49일 1회는 10만원 (위패비는 기도 때마다 별도로 받음)
- ◆ **위패비** : 1위당 - 5천원, 영가 옷 : 1천원
- ◆ **준비물** : 분유(우유), 사랑, 과자, 초코파이 등...
- ◆ **구담사 교통안내** : 강변역과 도봉산역에서 구담사행 버스가 08:00에 출발합니다. (강변역 테크노 마트 주차장 입구 / 1.7호선 도봉산역 도봉산 방향 입구)
- ◆ **대중교통 안내** :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 - 일동행, 수유리 전철역 터미널 - 일동행, ●상봉동 상봉 터미널 - 일동행 - 연곡4리 (제비물 하차) ●운행은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 ◆ **계좌번호** : 국민은행 : 217-01-0339-914 / 농협 : 225050-56-033370

※ 특히 대학 수능, 입사, 취업, 사업하시는 분은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위패 봉안하는 관례로 미리 동참하여 접수 바랍니다.